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
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십시오.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
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발곳: 우 110-170
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9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다피어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n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한생각 놓고 돌리면 구정물도 새물 돼

15면에서 계속

야야. 뭘 누가 믿어라 말아라 할 때까
지 있을 필요 있나.

한마음 자리에 들려면...

문 금강경에 '응무소주 이생기심' 이
란 사구제가 있는데 머무르는 바
없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
한 마음 자리인가 합니다. 한 생각하기
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다투는
자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. 그 자리에 들
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답 지금 그 말 대답한 말이나 똑같
습니다. 마음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
선장이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
마음이지요.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
서 물럭 놓을 수만 있다면, 물럭 놓되 그
냥 물럭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,
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물로 만들어서
놓고 그럴 수만 있다면 벗어나기가 얼마
나 쉽겠습니까.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
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전부 경
(經)에 있죠.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
면 더디니까, 아예! 그 구정물을 맑은 물
로 그냥 대체해서 써라! 이겁니다. 언제
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? 그 과정
을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처서 이렇게 한
다면 더디니까 그대로 집어 먹고, 그대로
맛을 알고,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리입니

로 통해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전체가 불
하죠. 전체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
리가 이심전심으로 사는 거죠. 그대로.
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본다면 부처님
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되어요.
아주 정확하게.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서
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도 그 감
각이라고도 하지만 육감적으로도 이렇게
오죠. 사람을 벌써 보기만 해도 '아, 저
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! 아, 어떻게
저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 사
람은 뭘 좀 어떻게 하겠구나.' 하는 거
를 대략 짐작하죠. 그렇게 하고 가는 사
람들도 생활속에서 있는가 하면, 이 마음
공부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마음
과 마음이 들어 아닌 까닭에 알고 있는
겁니다. 그게 '이심전심'이죠. 즉 말하자
면 영과 영이 한데 합치면 그대로 없으
면서 맑은 물이면서도 그것은 물이 아니
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. 전체를 알고 있
다. 꽃을 볼 때에도 이심전심이 돼요.
'아! 너는 왜 낮으면 피고 밤이면 오그
라 드느냐?' 고 물어보세요. 반드시 대답
이 있을 겁니다. 또 밤에는 피고 낮에는
왜 오그라 드느냐?' 고 물어보세요. 만드
시 회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심전
심이라는 것은 비밀의 행이면서도 이심
전심은 아주 묘한 광대무변한 법입니다.
그러니 그것은 깨달아야만 자기
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선목이라
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, 내가 만약에 예
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금방 이 자리에서
요 문밖을 나갔다 들어왔다. 또 지구를
한바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
시겠습니까? 모르시죠? 또 물 속의 생물
들을 다 만나고 왔다. 한 할나에 만나고
왔다 하더라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? 그
러니까 그게 이심전심입니다. 그러니까
어서 부처처럼 공부하셔야 이심전심의
그 묘한 도리를 체득하실 수 있죠. 그러
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는 자기가 체
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. 아야. 얼른
하게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그 천
백역화신이 이루어서 각계각층의 중생들
을 다 응하시니라! 이런 것을 거기에
포함하는 말이죠. '이심전심'이요.

10식 되면 생사 자유로운지요

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
칠식은 말라시, 팔식은 아뢰아시,
구식은 암마라시, 열식은 백정성인데, 어
는 책에서 보니까 백정성 정도되면 생사
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구



그림 · 최주현

러는 거와 똑같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
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물이 아닌 도리
가 바로 네 마음에 있느냐 이런 소립
니다.
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?
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마
음내기 이전은 항상 좋고 나쁜 걸 너무
나 잘 알고 있으니깐요. 과거에 어떻게
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주어진
그 마음내는 거는 이 공 육체 안에 잔뜩
들어 있습니다. 지금, 생명의 중생, 의
식들이, 그래서 그 마음이 자주 나오
는 겁니다. 그런 걸 다스려서 두 마음으로

이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의
모든 그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처처불
이요. 또 사사불공이라고 했죠? 불공이라
고 한 그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기 때문
에 생활자체가 그냥 움직여가는 그 자체
가 바로 공했다. 찰나찰나 공했다 이겁
니다. 즉 말하자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
다. 애지중애.
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금
방 돌아서면 자기 보고, 금방 돌아서면
또 거 보고 이러죠? 내가 항상 말을 했
죠. 가정에 들어가도 여자! 하면은 남편
이 봤다가, 금방 아버지! 하면은 아버지

수가 없을 땐 어찌가 무거워서 '어휴!
멋대로 되라' 이라고 내뿜어치죠. 그렇
듯이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. 오히려
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불상이 가려잡니
다. 발견이 돼야 할텐데 오히려 척척 불
어서 눈을 가려서 볼 수도 없어요. 그
러니까 오히려 떼야 될텐데 붙이면 됩니
까?

돌장승이 아기 낳는법

문 저는 불가에 귀의한 지가 한 25
년 됩니다. 최근에 어느 책에 보니
까, '불법을 알고자 한다면 돌장승이 아
기 낳는 법을 알아야 한다' 이런 귀절이
있었는데 무척 공감이 가서 저도 계획을
세워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
한 30년 예정으로요. 그래서 스님께서 좀
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답 돌장승이 아기 낳는 도리를 알아
야 된다 그랬죠? 그럼 여지껏 말씀
드린 것이 헛말을 했지 않습니까? 이런
돌장승 뿐만 아니라 꽃나무도 아기를 낳
을 수 있어요. 이 고목나무도 아기를 낳
을 수가 있고, 일체 만물이 다 아기를 낳
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가 탄생
을 했지, 정신이 탄생을 한 건 아닙니다.
그래서 첫째는, 육체가 탄생을 해야 정신
을 탄생할 수 있다. 내가 탄생을 해보야
장승이 어린이에 낳는 도리를 알지, 어떻게
안니까?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
소리입니까?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기를
낳아 보세요. 그러면 돌장승이 아기를
낳는 도리를 알 수 있을 테니깐요. 정말입
니다! 돌장승이 아기를 하나만 낳는 게
아니라 여덟개도 낳고 마흔개도 낳고 이
래요. 마흔개가 하나도 됐다. 하나도
없기도 했다가 이러거든요.

그러니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실려
면 계획이 없이 하세요. 계획을 없애고
지금 그대로. '돌장승이 아기 낳는 것도
너만이 알고 있어!' 하고 거기가 자주
돌조듯이, '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, 이끌
어 주는 것도 너고, 병을 낫게 하는 것도
너고,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, 못
되게 하는 것도 너가 잘되게 하는 것
도 너 아니야!' 하고 말이죠. 물 먹어본
사람이 물 맛을 알듯이, 꼭 그렇게 하
세요.

식물도 감정 있습니까

문 스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 요즘
한미음선원은 '부다피어'라는 인터
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대불교신문에

렇게 스키고 가는데 그 순간에 일파리가
이만큼 낚았는데 흐르르르 말린단 말이
예요. 그래서 참 요상하다 이러구선 그냥
막대기 작은 거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걸
건드렸어요.

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쪽 말리면서 막
대기를 들고 영 놓지를 얹는 거예요. 그
러기를 한 2시간 있으니까 놔주세요. 놔주
는데 보니까 그 놔가지가 은근히 잘려
졌어요. 부스러졌어요. 요만한 감정이 없
다고요? 이 모두가 참 마음공부를 하는
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
는 겁니다. 여기다 놓아서 내 마음이 큰
바다로 이룬다면 수증기만 해서 올라가
서 이 정수봉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그
것을 모든 만민에게 내린다. 물을.

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비가 오면은 초
고만 풀도 다 먹어요. 요만한 풀도요. 고
령조?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크면 큰
대로 먹죠. 벌써 생명이 있으면 생각이
있어요. 이 소나무가 땅이 모자라서 뿌리
를 내리는데 말이예요. 그것이 그냥 얼만
쯤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 닿게끔
해요. 땅에 닿아서 다시 뿌리를 박고서
살아나요.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? 허허허
하... 그건 언어도단어예요. 그러니까 사
람이 가다가 그냥 이따서 죽게 되니까
풀을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"나 좀 살
려줘. 나 죽었어." 하고 애원을 하니까
꿈인지 생인지 모르게 그 옆의 풀들이

보이는 세계나

보이지 않는 세계나

다 생명이 있기에

처처불이요

생활자체가

고정되지 않아

사사불공입니다

- 흔들리지 마세요
- 염주알이 염주줄에
- 그대로 꿰어져 있어
- 돌이 아니듯
- 무조건 믿으세요
- 그 마당에서는
- 의심도 근심도 없어요

다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자기
생각하기 이전이 자기 뿌리 아니까요. 그
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다가 믿고 놓으
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생물이 나올 것입
니다. 그 생물이란 것은 만법의 근본을
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
것입니다.

'이심전심' 몇식에 해당됩니까

문 마음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
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불법의
유식론에 보면 인간의 인식은 대개 열가
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섯가지는 육체적으
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가
지는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
습니다. 대개 우리 범인들이 느끼고 있는
것은 안식·이식·후식·설식·신식 또
우리가 교육으로 통해서 아는 의식입니
다. 이 여섯가지는 보통 범인들이 느끼는
데 일곱번째·여덟번째·아홉번째·열
번째 되는 것은 우리 범인들이 일반적인
공부를 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
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칠식·팔
식·구식·열식에 도전하는 많은 불자들이
있어왔고, 또 일생을 바치는 대덕 고
승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한 두어
사람에 대해 조사하도록 나오는 것 중에
한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.

달마조사와 양무제의 대화에서 나오는
달마어록에 보면 '심심상련', '교외별
전', '이심전심' 이런 대화가 어록에 나오
고 있습니다. 이것은 대개 제 몇 식에 해
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
니다.

답 항상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이라는
것을 얘기해 드려요. 그건 열가지는
백가지든, 천가지든 만가지든 그건 하나
로만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. 하나로
만! 내 근본 진실한 내 그 곳에서만
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
에 일체 만물이 집중은 집중대로 사람은
사람대로 말과 행이 그대로 이렇게 뜻

절이 있었습니다. 한말씀 주십시오.

답 백정식은요 그 의식까지도 없어
야 백정식이 되는 겁니다. 그것도
이름해서 아뢰아시이나 뭐 이것이 아주
물럭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'백정
식'이라는 건 '아주 없다'는 뜻입니다.
아주 깨끗한 무(無)가 돼야, 이것이 무
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소리
입니다.
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끊어서 부
스럼을 만들지 말고 모르는대로 그대로.
이 알은 반드시 줄여다가 다 놔라 이겁
니다. 의식까지도. 지금 직행으로 들어가
는 코스지, 이거는 거처서 계단을 밟고
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.

만법유심은 몇식 해당되나요

문 잘 알겠습니다. 두번째 질문은
올리겠습니다. 한국이 낳은 세계적
인 성인 원호대사의 어록에서 보면 '심
생즉 중종기요, 심멸즉 중종멸이라. 일체
유심이라. 일체유심 심의무법 만법유심
우주 일체는 오직 마음에 있다' 이런 어
록이 있습니다.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
신 바와 같이 어느 식에 해당되는 건지
요?

답 내가 아까 얘기했죠. 이게 정신계
와 물질계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다.
그 소리가.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한
다면, 그렇다면 염주알과 염주줄이 둘이
아니고 그냥 일심으로서 통하느니라. 이

하는 게 아니라 해탈할 수 없는 이 생
물체들이 자기 선장을 한마음으로 따라
올 때까지 건지라 이겁니다. 수행을 시키라
이겁니다.

마음공부 실천하는 방법

문 잘 알겠습니다. 세번째 질문은
올리겠습니다. 그림 그 마음공부를
하는데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
은 어떤 게 있습니까?
답 원리적인 방법이고 실천적인 방
법이고 따로 있습니까? 원리가 있
음으로써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지, 그 원
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겠
습니까? 원리가 있음으로써 망하게도 할
수가 있고 좋게도 할 수 있는 실천을 할
수 있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잘
다스려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
가지신다면 될 수 있는 거죠.

처처불법 사사불공의 생활

문 저는 '처처불법 사사불공'을 신
행신조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생활
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참 생활이 윤택해
지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. 좀더 효율
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
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답 뭐 달리 생각할 것도 없고 여기
앉아있는 분들이 다 생명이 있죠?
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죠? 처처불
이예요. 처처불! 즉 말하자면 사무사유,

가 됐다. 애, 아무개야! 하면은 아들이
됐다. 여보게! 하면은 사위가 됐다. 형
님! 하면 형님이 됐다... 이렇게 그냥
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까? 생활도 모든
일체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
또 육체 안에 들은 생명체들도 고정된
게 하나도 없습니다. 작용하는 것이 전
부... 어떤 때 이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때
저렇게 들어오고, 어떤 때 딱딱하게 들어
오고 어떤 때 물이 들어오고, 이러니까
작용하는 것도 사사건건이 달라요. 이런
들어오는 대로 사사건건이 다르니까 사
사건건이 어떤 건 이렇게 내보내고 어떤
건 저렇게 내보내고, 어떤 건 모자라는
대로 이렇게 메꿔서 내보내고, 그러다가
고장이 나면 메꿀 수가 없게 되는 이치
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.

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누덕누덕 붙여
가지고 오히려 끊어서 부스럼을 만들지
마세요. 생명이 있는 모든 일체는 즉 풀
한 포기도 불이요. 처처불이! 또 일체
가 다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
말로 통하는 게 고다. 그리고 그 일상생
활 자체가 그대로, 삼천대천세계가 전부
공했어! '불공' 하는데, 이게 '평등불
공!' 이렇게 해도 되구요. 아주 간편합니
다.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
이렇게 간편하게 배워야요. 너무 어렵게
배우면 어찌가 무거워서 더 안돼요. 왜
집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. 너무 닦치는
게 많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

나무도 풀도 생명체에는 다 생각 있어요 이심전심은 전체가 통하는 광대무변 法

다 그냥 얼굴을 내밀구선 자기 액을 빼
주더라는 거죠.
자기 일파리 하나씩 빼서 입에다 넣어
주더라는 거예요. 그래 그 꿈을 꾸구선
살아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다는 거
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보구서
이 세상에 모든 생명있는 풀들은 다 생
각이 있고 다 사람이 있고 의리와 도의
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. 또 약하게 쓰
면 약한 업이 그대로 자기가 다음 생
에 나올 때 모습을 달리 해서 나온다는
것도 알게 되었구요. 이게 무서운 일입니
다.

예전에 누가 버드나무를 잘랐는데 피
가 나더라는 거예요. 도끼로 한 번 땅
쳐는데 피가 주르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.
그래서 그걸 못지 못하고 돌아왔는데
피 곶에 양 좀 발라달라고 그러더라는
거죠. "네 생명만 중하지 내 생명은 중하
지 않느냐"고 하면서, 그걸 만약에 끝까
지 잘랐더라면 그 식구 중에 하나는 죽
었을 거예요. 그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.
모두가 다 그래요. 사람은 보통 다양하게
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
러나 짐승들은 채식하는 게 있고 육식하
는 게 있죠. 그렇게 채식하는 동물은 인
간으로의 진화가 빠르고 육식하는 동물
은 남의 생명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에
인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게 나와
요.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
예요.

그래서 무의 세계에 정신세계를 알려
면 관속이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죠. 죽어
봐야 아니게 죽어라, 여러분들이 다 죽어
라 이런 소리예요. 죽는 것이 죽는 사이
없이 죽으라는 소리지 아주 죽으라는 소
리가 아니죠.